No. ①
Date 25 1 15(수)

기본 문제 15. 분개

A주식 =

⊕자산 ⊖		손채	
(판매 목적 ~~투자~~ 증권)	6,000	(~~유가 증권~~ 평가 차익)	6,000
①(유가 증권 평가 차익)	6,000	(판매 목적 유가 증권)	6,000
②(기타 유가 증권)	8,000	(자회 평가 차익)	8,000
③(분개 X)		( )	
④(만기 보유 목적 채권)	100	(당기 상각액 =유가 증권 이자)	100
(만기 보유 목적 ~~채권~~) 평가 차익	900	(~~평가 차익~~)	900

시가 총액 99,000
98,100
이득 = 900

지금 ~~상각~~, 이자, 만기 상각을 왜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정리할 것)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유가증권〉 복습 · ① 25. 1. 16 (목)

주식과 채권에 대해 공부
주식 · 채권: 원금 상환 + 이자 소득을 기대하는 상품.

판매 목적의 유가증권
주식 채권

유가 증권의 분류 : 목적 · * 트레이딩 목적 · 회사 채권

공채 [국채 / 사채] (公社債)
① 판매 : 시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이익)을 노리는 주식, 채권?
② 보유 :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증권 공사채. 왜 회사가 되는데 공사채에도 시가 변동이 있나

→ 자금의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린다 (차입금?) 사채의 경우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이미지인데, 회계에서 사채란
회사의 자본금을 만들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유가 증권의 분류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① 판매 목적 - 주식 · 시가 변동에 의한 이익이 목적이다. (트레이딩 목적)
☆ - 공사채(채권) 時価
② 만기 보유 목적 - 공사채(채권) 원금 상환 (액면가), 리스크↓ 이자 수익이 목적이다.
금리와 이자율의 영향을 고려한다.
③ 자회사 관련회사의 지배·영향력 목적
④ 그외 유가증권 - 장기 보유 목적 · ※ 그외 유가 증권은 ①~③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가 증권을 의미함
장기와 만기는 다름.
상환일(기일)이 존재함.

그외 유가증권 (장기 보유 목적)

- 시가 변동에 의한 이익 창출 〈주식, 공사채〉
- 영업 (제재를) 위한 持ち合い 주식?

持ち合い 기업 간에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 적대적 인수 합병 (M&A) 방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함

장점 ·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

단점 · 유동성 감소
시장의 왜곡 가능성 증가

분류 (목적)

유가증권의	B/S 표시과목과	표시 구분 (B/S)
판매	유가증권	유동 자산
만기 보유	투자 유가증권	고정 자산
자회사 · 관련	관계회사 주식	고정 자산
그외	투자 유가증권	고정 자산 (장기 보유목적)

주식의 처리 (배당)

(현금 300,000 수취 배당금 300,000)

" (주매) keyword 수수료 취득원가에 수수료도 포함한다.

(판매)

매각액 - 장부가격 ± 유가증권 매각 (손익) *

예제 5-1.

판매목적 유가증권 80,000 현금 80,000

판매목적 유가증권 43,000 현금 43,000

= (80,000 + 43,000) / 1,500주

(현금) (매각대금) 50,000 판매목적유가증권 41,000 = @82 × 100 주

〈평균단가〉

판매유가증권 매각익 9,000 = (41,000) 매출원가.

50,000.

50,000 - 41,000

공사채 〈 국채 / 사채 (회사 채권)

채권의 이자

이자 명세서 (채권) 차액 = 9,000 (이득)

이자 명세서 (쿠폰)에는 각각 이자 지급일 (기일)이 기록되어 있다.

장부상 기일이 도래한 쿠폰은 현금으로 취급한다. (통화대용 증권)

기일이 도래한 쿠폰

→ 현금 (통화 대용증권) 취급.

→ 이자의 수취를 의식하여, 유가 증권 이자 (수익)으로 계상한다.

공사채 (회사) 이자 명세서 (14,750) 기일 도래. P/L 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표시한다. 〈기말〉

통화 대용증권 이자 수취 (현금)

현금 14,750 유가증권이자 14,750 (수익⊕)

회채 (채권) 매입의 경우 "판매 목적"

취득원가 = 주입단가(1장) × 액면가/100¥ + 주입 수수료

100인으로 액면가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

액면금액이란, 채권 발행당시의 금액 가치. 100원당 95인을 주매. 95/100 × 100%.

채권에 표시된 금액, 할인 발행 = 95% 가격

100인 당 XX인으로 주매. 할인 주매 (싸게 주고 주매)

발행 당시 100인 당 100인. 할증주매 (비싸게 주고 주매).

비율은 100%.

투자자가 채권의 가치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직관적으로.

〈분개 예제 3-1〉 액면금액 10,000 (100¥ 당 95¥ 매입)

주매원가	9,500
지불 수수료	50
판매목적유가증권	9,550

할인 발행 ※ 5% 할인

~~현금~~ 당좌예금 ~~95,50~~ 9550

액면금액 (발행 시 가치) / 100 = 100 당 가치를 직관적으로 확인.

= ~~평균 단가~~. (단위 100엔)

주매 단가 : @95 인

100 원당 단순하게 100인당 95인에 주매 합니다.

비율 비율 보이잖아. 할인 발행 (%)

〈분개 예제 4〉 판매목적 유가증권 채권의 매각 주식의 매각

액면금액 = 10,000 @96 매각 평가 감정은 판매목적이라 될 거다.

취득원가 = 9,550

10,000/100 × @96 = 9,600

현금수표) 9,600.

판매목적 유가증권 9550

유가증권 매각익 50

채권의 매각에 있어서 나머지 이자에 대한 처리가 발생한다

↳ 단수(端立常数) 이자.

이자 지급일까지 다음 날 ~ 매각일 의 일수 만큼. 채권 판매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연이자 7.3%. 10000 × 7.3% XX일/365 = 지불 이자.

채권 매각, 단수이자(나머지 포함)

〈판매자〉

현금(19,940) 판매목적 유가증권 (19,200) } 구매자 유가증권 산식.
매각 대금. 유가증권 판매익 (200) }
유가증권이자 (540)
↳ 소유한 일수 만큼 현금으로 지급 받음.

〈구매자〉

판매목적 유가증권 (19,400) 현금(19,940)
~~유가증~~
유가증권 이자 (540)

※ 단수이자의 계산 = 채권(액면금액)* × 연이자 × $\frac{XX일수}{365}$

여기까지, 유가증권의 종류,
판매목적 주식과 채권의 매각, 매입*을 학습.
(+ 단수 이자의 개념)

다음은 기말평가를 학습한다.
(판매목적 유가증권의 기말평가
시가로 기말평가, B/S 평가 차액을
P/L 이익인 경우 / 손실인 경우 유가증권평가익/손 益/損
〈 切放 기말평가 후, 장부가격을 시가로 처리
洗替 기말평가 후 장부가격을 되돌림 (취득원가)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손익결정 ⊕
차변(손해) 대변(수익)

기말평가 문제 ①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한다. 취득원가 / 시가 (x) 10,000 / 11,000.
② 손익을 차액의 손익을 평가한다.

판매목적 유가증권 1,000. 유가증권 평가익 1,000. 시가가 더 큰 경우 (이득).
유가증권 평가손 1,000 판매목적 유가증권 1,000. 시가가 줄어든 경우 (손해)

기본문제 13 W/S 끝. 판매목적 유가증권(주식, 채권) 완료.
다음 챕터: 만기 보유 목적 채권(공사채).

(만기 보유 목적 채권)의 기말평가
판매목적의 유가증권과 다르게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B/S에 기재한다.
단, 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원가로 B/S에 기입한다.

만기 보유 목적 채권

금리 조정 차액으로 인한 가치 변화는 원가에 상각원가법 통해서 BS에 상각원가로 기재한다.

금리의 변동, 이자율의 변화.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인기는 감소 (시중 은행에 예금 하는 것이 더 이득)

→ 이 표현이 준나게 헷갈리게 하네.

채권을 액면금액보다 비싸거나, 싸게 산 경우

↳ 원인: 금리의 변동.

※ 상각원가법이란?

채권 발행 시의 액면가격은 금리에 따라 가치가

시장 금리보다 채권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바뀐다 〈금리와 이자율은 반비례〉

채권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 리스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금리는 변동하지만, 채권의 이자율은 고정.

변동 금리, 고정 이자율.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100 당 @ 95 (할인 발행)

인정적인 고금리 예금. 리스크가 있는데 이자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채권 가격의 하락.

〈정리〉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의 기말 평가는 취득원가로 기입한다.

But, 금리 조정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상각원가를 계산해서 BS에 기입한다.

금리는 변동하지만, 채권의 이자율은 고정값이기 때문이다.

↓

채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상각원가법이란. "당기 상각액"

: 채권의 취득원가를 기점으로 만기일까지의 이자 수익, 비용을 정액이나 정률로 배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대차대조표에 상각원가를 기입하면(?) 뭐가 좋은거지?

상각원가 차액은. 유가 증권의 이자로 처리.

재해 결산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이자 감정을~~ 보면,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확인?

~~이자 감정과~~, 액면가, 취득원가를 비교해 봐야 아는것.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기 상각액 = (채권 금액 - 취득원가) × 당기 채권 보유일수 / 만기 취득일 만기일까지의 남은 일수

이자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 차액 × 보유일수 / 만기일수 (ex : 3년)

당기 상각액이란, 당기의 채권 이자수익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원금 상환 액면가로 간다.

문제 7. ×1/4/1 〈채권 매수〉 10,000 / 3년
취득 원가 $\frac{10,000}{100}$ × @97 = 9,700
(만기 보유 목적 채권 9,700 당좌 예금 9,700)
〈결산, 기말평가〉
상각 원가 계산 = 300 × $\frac{1}{3}$
(만기 보유 목적 채권 100 / 자산 ⊕100 채권이자 100 / 수익 ⊕100) = 100

(1) 채권의 액면가로 상각을 계속 한다. 고정 (매년 결산)이다.
즉, 액면가와 이는 정도 차이가 있는가 기준
지금 금리와 비교해서
얼마에 채권을 사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차액 / 만기 개월수 = 월 이자 수익 × 보유 개월수
= 당기 이자 수익 = 당기 상각액
받은 만큼 상각한다는 개념

만기보유목적 채권 100 유가증권이자 100.
~~기본~~문제 14. 다시 풀어보기.
채권(만기) 매입 ×1/4/1 액면가 : 10,000 / 만기 ×6/3/31 = 5년
~~연이자 : 2%~~ 10,000 × 2% = 200
이자 지급 : 9월, 3월말 모두 수령 (= 200)
취득원가 : $\frac{10,000}{100}$ × @97 = 9700

※ 결산에서 취득 수치 이자만큼 채권 가치를 올린다.
(만기보유목적채권 200 유가증권이자 200)

수정기입	⊖	⊕
만기보유목적채권		200
유가증권이자	~~200~~	

취득원가와 액면가의 차이는

대본문제 14 상각원가 계산하기

유가증권 이자 ≠ 상각원가액 　 이자는 (쿠폰) 따로 처리하고
추가로 상각원가액을 "유가증권 이자" 감정으로 처리.

액면금액 (= 채권 금액)의 연이자 2% 문제에서 이미 쿠폰 이자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기재됨.
= 10,000 × 2%
= 200엔 3월, 9월말 수취함, 잔액 T/B에 반영됨.
즉, 채권의 상각원가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임.

상각원가액 = (10,000 − 9,700) × 1년/5년
(9,700 = 취득원가)
x1년/4/1 매입. 만기 5년 채권
x2년/3/31 결산을 결과 개월수 = 12개월

당기 상각액 = 300 × 1/5
= 60엔

자본 채권의 2의 유가증권 (장기 보유 목적) B/S에 기재한다.
투자자산 but. 시가로 기말평가를 한다.
그런데 감정이 안된다. 　 판매 목적인 유가증권과 동일.
그럼, 기타 어떻게 처리하지?. 　 시가로 기재하는 경우, "평가 차액"이 발생한다.
↳ 기타 유가증권 차액금 감정

왜, 순자산으로 처리 하냐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장기보유목적 등 비교하여, 투자자산 계상한다.
의 유가증권이므로. 당기의 손익 감정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순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상한다. 무엇을? 평가 차액을.

회계 처리 평가 차액 전부 순자산으로 계상.
평가 차액의 합계를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감정을 사용해서 계상한다.
(이름 너무 길다)..

취득원가 합계 > 평가차액 합계 (손해)
⊖ 순자산의 ⊕ 차변에 기재한다.
기타 유가증권 잔액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금 (잔액 = 합계) 이득.

차변, 대변이 반대인 경우 손해. 순자산으로 계상한다.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건가 손익 속성이 감정이지만, B/S 에서는 순자산으로 표시 구분한다.

예제 5-6 기타 유가증권 역분개 해야 하나?

x2/3/31 x2/4/1 T/B (시산표) 작성.

수정 T/B 기타유가증권 2,700 (차)

→ 결산 정리 (기말평가) ~~회계처리~~ (분개)

(이후 처리) 기타유가증권 300 기타유가증권평가차액금 300

기타유가증권평가차액금 100 기타유가증권 100

~~기타유가증권평가 차액금~~ ...

합계 ⊕200. B/S 에 순자산으로 계상한다.

대변 ⊕.

~~기타 유가증권~~ 2,900

자산 차변 ⊕ B/S

x2/3/31

기타 유가증권 2,900	기타유가증권평가 차액금 200

날더라도 모르겠다. 이게 회계의 결론다?

x2/4/1 〈역분개.〉 순자산 → 자산

기타유가증권평가 차액금 300 기타 유가증권 300.

기타유가증권 100 〃 평가차액금 100.

하기 T/B

x2/4/1

기타 유가증권 2,900	기타 유가증권 평가 차액금 200

기수 T/B는 전년도 결산 정리 후 B/S 값이 그대로 이월된다?
그럼 역분개 왜 함...